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6.30.(목)
책임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 용 호(02-2100-2860)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형 주(02-2100-2650)	담당자	오 형 록 사무관 (02-2100-2864) 박 재 훈 서기관 (02-2100-2651)	

제 목 :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6월부터 경영예산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경영실적 심의·평가를 진행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 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면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 ① 경영예산심의회 : (목적)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평가대상)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② 경영평가위원회 : (목적)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최종평가 결과는 A등급 1개, B등급 2개, C등급 2개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산은	기은	수은*	거래소**	예탁원
'14년	A	A	B	B	B
'15년	C	A	C	B	B

*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 경영예산심의회에 위탁하여 평가

** 한국거래소는 '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경영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①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으로 평가

② 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상장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 예탁원의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연 등 혁신 노력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 거래소의 경우 상장유치 실적이 우수하고, 예탁원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 기관 모두 작년과 같은 B등급으로 평가

③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하나,

-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한 평가로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 향후에도 엄격한 기준의 경영실적 평가를 지속해 나갈 계획

특히,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이행할 계획으로

○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17.6월) 동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